

1970~75년 북한의 블럭불가담(non-alignment) 인식과 활동*

블럭불가담 회의를 중심으로

김도민**

본고는 1970~1975년 북한의 블럭불가담(non-alignment) 관련 인식과 대외활동의 양상을, 블럭불가담 회의의 한반도 결의안과 북한의 가입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은 1970년부터 다시 열리기 시작한 블럭불가담 수뇌자회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외활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특히 북한은 1973년 열리는 블럭불가담 수뇌자회의의 한반도 문제 관련 선언·결의문에 김일성이 내세운 조국통일 5대강령의 내용이 반영되게끔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이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제4차 블럭불가담 수뇌자회의 최종 선언문이 발표된 직후, 북한은 한반도 관련 선언 및 결의문이야말로 자신들의 '자주적 대외정책'의 승리라고 규정하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이러한 성과를 이어받아, 1975년 페루 리마에서 열린 블럭불가담 외상회의에서 북한은 남한을 따돌리고 홀로 가입에 성공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에 대해 북한은 자주적 대외정책의 성과이자, 김일성의 한반도 통일 방안에 대한 국제적 지지이며, 나아가 사회주의 진영의 강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주제어: 블럭불가담(비동맹), 자주외교, 두개 조선(두개의 한국), 한반도 평화, 리마회의, 남북한 외교경쟁, 조국통일5대강령

* 이 논문은 2023년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구지원금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익명의 세 심사자 분들의 구체적이고도 유익한 논평에 감사드립니다.

** 강원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1. 머리말

본고는 1970~75년 북한의 뿔럭불가담(non-alignment) 관련 인식과 대외활동의 양상을, 특히 뿔럭불가담 회의의 한반도 결의안과 북한 가입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¹⁾

‘뿔럭불가담’이란 영문 ‘넌얼라이언먼트(non-alignment)’의 북한식 번역어로 냉전기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극(兩極)을 중심으로 구축된 종속적이고 이분법적인 냉전질서를 거부하고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제3세계 국가들의 집단적 움직임을 의미한다.²⁾ 남한에서는 뿔럭불가담 대신 ‘비동맹(非同盟)’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1961년 제1차 뿔럭불가담 수뇌자회의를 시작으로 3년마다 수뇌자회의가 열리는 것이 원칙이었다. 수뇌자회의에 앞서 뿔럭불가담 조정위원회 외상회의와 뿔럭불가담 외상회의가 개최됐다. 그런데 1967년 열려야 하는 제3차 뿔럭불가담 수뇌자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1965~66년, 그동안 비동맹운동을 주도해 온 아시아, 아프리카의 주요 비동맹 국가들에서 “미증유의 정치적 격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³⁾

1) 본고는 북한의 대외활동을 다루기 때문에, 북한식 번역어인 뿔럭불가담을 사용했다. 또한 본고는 비동맹 관련 회의 명칭도 당대 북한에서 사용된 용어를 사용했다. 특히 정상회의는 수뇌자회담으로 썼다. 그리고 외무부 장관들이 모이는 회의에 대해 북한은 외상회의 또는 외교부장회의를 모두 사용하였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외상회의로 표기하지만, 북한 자료에서 외교부장회의로 서술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했다.

2) 김도민,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비동맹 외교: 한국의 가입신청 문제를 중심으로』(서울: 선인, 2023), 12쪽.

3) 격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65년 6월, 알제리에서 부메디엔극방상의 쿠데타에 의해 벤디라정권이 붕괴되었고, ‘9.30사건’을 발단으로 인도네시아

지시부진하던 빨럭불가담 그룹의 움직임은 “1969년 닉슨 독트린 이후 미국과 소련, 미국과 중국 간에 진행된 데탕트”⁴⁾라는 지구적 냉전의 구조 변화에 따라 다시 결집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동안 열리지 못했던 제3차 빨럭불가담 수뇌자회의가 1970년 잠비아 루사카에서 열렸다. 특히 1972년 가이아나 외상회의 때부터 “정치적·경제적 두 측면에서 반제국주의·반식민주의를 더욱 선명하게” 내세우기 시작했다.⁵⁾ 이러한 빨럭불가담의 영향력 증대는 북한에 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 논의와 관련된 남북 대결에서 더욱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북한이 판단하기에 1960년대 중후반부터 미국은 소련과 관계를 개선하며 작은 나라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새로운 냉전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특히 베트남전쟁에 대하여 중국과 소련은 북한이 생각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1960년대 중후반부터 북한은 좌우경 기회주의를 비판하며 대국에 의존하기보다 작은 나라들과 자주적 연대를 추구하는 새로운 냉전전략을 내세우기 시작했다.⁶⁾ 1970년에 이르면 중국과 소련은 갈등을 넘어 완전히 대립했으며, 미중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나름대로 능동적인 반응 또는 대응을” 모색해야 했다.⁷⁾

에서는 반혁명이 전개되어 수카르노정권이 붕괴되었으며, 군부 쿠데타에 의해 가나의 앙크루마정권, 말리의 케이타정권 또한 붕괴되었다.” 『제2부 비동맹운동의 역사』 편집부 엮음, 『비동맹운동』(서울: 지양사, 1985), 84쪽.

4) 박원근, “데탕트와 한미관계: 1969~1973년,”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 엮음,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현대편 2』(서울: 경인문화사, 2019), 215쪽.

5) 편집부 엮음, 『비동맹운동』, 86~87쪽.

6) 김도민,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216~223쪽.

7)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파주: 창비, 2012), 146쪽.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은 “60년대 들어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원조가 급격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무역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1971년부터 북한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차관을 들여오기 시작했다.⁸⁾ 또한 북한은 “1973년 유로채권을 발행”하기까지 했다.⁹⁾ 특히 1970년대 들어 비동맹 그룹을 중심으로 기존의 강대국 중심의 종속적인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됐으며, 실제 1974년 5월 유엔총회에서는 “신국제경제질서 수립 선언(Declara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이 채택됐다.¹⁰⁾

이처럼 냉전기 지구적 국제정치에서 뿔럭불가담의 영향력이 가장 컸던 시기가 1970년대였을 뿐 아니라, 북한은 1975년 페루 리마에서 열린 뿔럭불가담 외상회의에서 가입에 성공함으로써 뿔럭불가담의 일원이 되었다. 즉, 1970년대 초부터 북한은 지구적 차원의 미중 데탕트와 뿔럭불가담 내부의 동향, 그리고 남북관계의 변화라는 상황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뿔럭불가담 관련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에 본고는 먼저 1970년 제3차 뿔럭불가담 수뇌자회의까지 북한의 인식을 정리하고, 이어서 본격적으로 1970년대 초중반 열린 뿔럭불가담 관련 회의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활동 양상을 정리 및 분석하고자 한다.

1970년대 북한의 뿔럭불가담 가입 성공과 남한의 가입 실패라는 상

8) 양무진, “1970년대 북한경제와 장기침체 메커니즘의 형성,” 『현대북한연구』, 제6권 1호(2003), 59~60쪽.

9) 김승우, “경제성장과 냉전의 체제경쟁 그리고 지구적 금융: 전후 남북한의 국제금융사,” 『역사의 창』, 제24권 1호(2022), 21쪽.

10) 안청시, “신국제경제질서운동과 제3세계의 교섭전략: 아시아의 지역협력문제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세계정치』, 제7권 1호(1982), 214~215쪽.

항과 맞물려, 남한의 관변 연구기관이 가장 먼저 북한의 빨럭불가담 관련 연구를 시작했다.¹¹⁾ 1975년 정부 산하 통일문제연구소 소속이던 한치환은 연구용역으로 국토통일원에 『북괴의 대(對)중립국 외교정책 및 그 대비책』이라는 연구 결과물을 제출했다.¹²⁾ 그의 연구는 1978년 국토통일원에서 출간한 『북한개요』에 대부분 반영됐다. 『북한개요』는 북한의 대외관계를 자세히 다루면서 제3세계 외교라는 항목으로 빨럭불가담 외교를 개괄했다.¹³⁾ 이후 남한에서 생산된 북한 외교사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북한개요』의 시기 구분과 유사하게 서술됐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남한의 정치외교학을 중심으로 북한의 빨럭불가담 외교에 주목한 연구들이 제출됐다.¹⁴⁾

-
- 11) 이하 작성한 한 문단의 연구사 정리 내용은 본인의 박사학위논문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김도민,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 14~15쪽.
- 12) 한치환은 북한 외교를 총 다섯 단계로 구분했다. 그는 1단계는 1948년 정부수립부터 55년까지의 대소일변도 접근기, 2단계는 1956년부터 61년까지의 다원적 대외접촉기, 3단계는 1962년부터 64년까지의 대중공 접근기, 4단계는 1965년부터 68년까지의 대소관계 개선 및 대중소관계 소원기, 5단계는 1969년부터 75년까지 대·중·소 동시적 접근 및 대외정책의 전술적 전환기 등으로 구분했다. 한치환, 『북괴의 대중립국 외교정책 및 그 대비책』(서울: 국토통일원, 1975).
- 13) 국토통일원 엮음, 『북한개요』(서울: 국토통일원, 1979), 236~238쪽. 국토통일원에서 출간한 『북한개요』는 1978년 12월에 초판이, 1979년 12월에 개정판이 나온 이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판이 발행됐다. 본 연구자는 1978년 초판본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정판인 1979년 판본을 전거로 삼았다.
- 14) 고병철 외, 『북한외교론』(마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78); 임태균, “북한의 대비동맹정책에 관한 연구: 정책결정요인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김남식, “북한의 대비동맹 외교정책”(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박재규 엮음, 『북한의 대외정책』(마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6); 민병천 편저, 『북한의 대외관계』(서울: 대왕사, 1987); 정규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서울: 일신사, 1997); 김훈태, “북한 대외정책노선에 관한 연구: 비동맹론 수용 이후 김일성 대외관 변화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이 시점까지 진행된 관변 연구와 정치외교학 쪽 연구들은 대부분 1970년대 북한의 뿔럭불가담 외교 가입 성공과 남한의 실패라는 사건에 주목했으나, 정작 그 구체적인 전개 과정을 밝히지는 못했다. 그런데 2015년 임상순의 연구는 “1970년부터 1979년까지 10년 동안 북한이 제3세계와 유엔을 상대로 펼쳤던 외교활동을, 전략메커니즘의 틀을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설명”했다.¹⁵⁾ 그의 연구는 북한이 생산한 1차사료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앞선 연구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전략메커니즘”이라는 이론적 틀을 설명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보니, 1970년대 전개된 북한의 뿔럭불가담 관련한 구체적인 인식과 활동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가장 최근인 2022년에 윤승로는, 1971년부터 1975년 시기의 “북한의 비동맹외교 전개” 양상을 정부 및 민간 측면에서 연도별로 상세히 정리했다.¹⁶⁾ 그런데 이 연구는 1970년대 전개된 뿔럭불가담 수뇌자회의와 외상회의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북한의 뿔럭불가담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양상도 밝히지 못했다

이에 본고는 먼저 제2장에서는 1960년대 열렸던 제1차와 제2차 및 제3차 뿔럭불가담 수뇌자회의(1970년)에 대한 북한의 인식 변화 양상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¹⁷⁾ 제3장에서는 1973년 열린 제4차 뿔럭불

석사학위논문, 1991);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서울: 백산서당, 2002).

15) 임상순, “제3세계·유엔외교의 목표와 전략,” 서보혁·이창희·차승주 엮음, 『오래된 미래? 1970년대 북한의 재조명』(서울: 선인, 2015).

16) 윤승로, “북한의 비동맹외교 전개 과정(1971~1975)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17) 본고는 1970년부터 1975년까지 북한의 뿔럭불가담 인식과 대외활동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 전사(前史)로서 1960년대는 간략히 소개하는데 그쳤다.

가담 수뇌자회의부터 북한이 관련 대외활동을 전개한 역사적 맥락과 과정을 정리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1975년 페루 리마에서 열린 빨럭불가담 외상회의에서 북한은 남한의 가입 시도에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그리고 어떻게 북한 단독으로 가입에 성공했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고는 기본적으로 역사학적 방법으로서 당대 북한이 생산한 1차사료에 입각하여 북한의 빨럭불가담에 대한 인식과 활동을 정리했다. 그리고 다국적 사료교차의 방법으로 우드로윌슨센터의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제공하는 북한 주재 동유럽 대사관이 생산한 자료도 활용했다. 또한 본고는 남한 외교부가 1970년대 생산한 대(對)북한 외교 사료를 활용해, 제한적인 북한 자료의 한계를 일부 보완하고자 했다.

2. 1970년까지 북한의 빨럭불가담 수뇌자회의에 대한 인식

1961년 6월 5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제1차 빨럭불가담 수뇌자회의 준비를 위한 대사급 준비위원회가 열렸다.¹⁸⁾ 이 준비회의는 빨럭불가담 수뇌자회의를 같은 해 9월 1일 유고슬라비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¹⁹⁾ 주요 의제를 둘러싸고 난항을 겪던 준비회의는 6월 11일 ‘중립’의 정의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제시함으로써, 빨럭불가담 회의의 가입자격을 최초로 밝혔다.²⁰⁾

18) “냉전완충지 마련? 중립국정상회담준비 「유엔」 총회전(前) 개최,” 『동아일보』, 1961년 6월 7일.

19) “9월1일 개최 중립국정상회담,” 『동아일보』, 1961년 6월 10일.

20) “『중립』정의를 합의,” 『동아일보』, 1961년 6월 13일.

1. 중립국은 일정한 노선과 평화공존에 입각한 독립된 정책을 따라야 한다.
2. 해방운동을 지지해야 한다.
3. 다른 국가들과 군사동맹을 맺고 동서투쟁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
4. 동서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어느 강대국과도 군사동맹을 맺어서는 안 된다.
5. 외국에 군사기지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준비회의의 결정에 따라 1961년 9월 1일부터 6일까지 제1차 뿔럭불가담 수뇌자회의가 유고슬라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에는 정식 참가 25개국, 옵서버 3개국이 참석했다.²¹⁾ 동 회의는 첫째, 국제정세에 관한 의견 교환, 둘째, 국제평화의 확립 및 강화, 셋째, 기타 문제, 넷째, 회의 코뮈니케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²²⁾

제1차 뿔럭불가담 수뇌자회의에 대하여 북한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북한의 『로동신문』은 뿔럭불가담회의를 언급할 때 인도와 이집트가 내세우는 반식민·뿔럭불가담 정책을 지지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유고슬라비아의 발언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²³⁾ 1962년에도 『로동신

21) 참가국 명단은 다음과 같다.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버마, 캄보디아, 세이론, 콩고, 쿠바, 사이프러스, 에티오피아, 가나, 기니,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레바논, 말리, 모로코, 네팔,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 수단, 튀니지, 아랍에미리트 공화국, 예멘, 유고슬라비아.

22) 대한민국 외교사료관 소장 외교사료, 『(문서철명)비동맹 정상회담, 제2차, Cairo, 1964.10.5.-11. 전 2권: V.1 기본문서』, 생산연도 1964(공개연도 1995), 생산과 중동, 공개번호 889, 분류번호 728.1, 롤번호 F-0001, 파일번호 1. 이하 대한민국 외교사료관이 제공하는 외교사료는 『문서철명』, 생산연도(공개연도), 생산과, 공개번호, 분류번호, 공개번호, 롤번호, 파일번호의 순으로 표기했다.

23) “국제 긴장 상태의 근원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이다(뿔럭 불가담 국가 수뇌자

문』은 12월 인도네시아 신문의 내용을 인용 보도하면서 유고슬라비아가 “뿔럭불가담의 가면을 리용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을 분열시키려” 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⁴⁾

북한이 뿔럭불가담 회의에 비판적이었던 것은 일차적으로 1960년대 초까지 공개적으로 사회주의 진영과의 대외관계를 강조했다기 때문에, 소련과 대립하던 유고슬라비아의 티토가 주도하는 뿔럭불가담 회의를 옹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²⁵⁾ 또한 북한은 1960년대 초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관계는 소원해졌지만, 중국과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그런데 중국과 국경분쟁을 벌이는 인도는 뿔럭불가담 회의에 참여했으나, 중국은 참여하지 못했다. 따라서 1960년대 초 북한은 비사회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국제회의는 뿔럭불가담이 아니라 제2차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여야 한다는 생각을 견지했다. 결국 북한은 중국이 배제된 채 중립 및 뿔럭불가담을 표방하는 제1차 뿔럭불가담 수뇌자회의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²⁶⁾

1964년 4월 14일 북한은 『로동신문』에 쿠바 신문을 인용 보도하는 방식으로, 1964년 10월 열릴 예정인 제2차 뿔럭불가담 수뇌자회의는 유고슬라비아 때문에 반제국주의로 귀결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출했다.²⁷⁾ 그럼에도 1차 때와 달리, 1964년 10월 4일 북한은 김

회의 진행), 『로동신문』, 1961년 9월 9일.

- 24) “《뿔럭불가담》의 가면을 리용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을 분열시키려는 유고슬라비아의 시도에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로동신문』, 1962년 12월 13일.
- 25) 북한은 “1967년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의에서도 유고슬라비아를 제외한 13개 국가를 사회주의 진영으로 지칭하였다”라고 한다. 박아름, “데탕트의 압력과 북한의 대응: 북한과 유고슬라비아의 관계전환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 26권 1호(2022), 74쪽.
- 26) 김도민,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 153쪽.

일성 내각 수상 명의로 제2차 뿔럭불가담 수뇌자회의에 축전을 발송했다. 축전에서 김일성은 회의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민족적 독립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업에 기여하리라는 기대를 표명”했다.²⁸⁾

1964년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제2차 뿔럭불가담 수뇌자회의가 47개국 및 10개 옵서버 대표국이 참가한 채 열렸다. 회의 마지막 날 채택된 최종 선언문은 1차 회의 때와 달리 제5항 제4절에 “분단국가 문제”가 처음으로 포함됐다.²⁹⁾ 그러나 분단 문제의 구체적인 대상은 언급되지 않았다.

제3차 뿔럭불가담 수뇌자회의는 예정된 1967년보다 3년이나 늦은 1970년 9월 8일,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에서 열렸다. 이는 1960년대 중반 비동맹을 주도해 온 국가들이 ‘정치적 격변’을 겪었기 때문이다.³⁰⁾ 이번에도 북한은 김일성 내각 수상 명의로 제3차 뿔럭불가담 수뇌자회의에 다음과 같은 축전을 발송했다.³¹⁾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나자신의 이름으로 제3차뿔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를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이 아세아에서 침략전쟁의 불길을 더욱 확대하고

27) “꾸바 신문이 뿔럭 불가담 국가 회의 준비 회의에서의 유고슬라비아 정부의 입장을 규탄,” 『로동신문』, 1964년 4월 14일.

28) “제2차 뿔럭불가담 수뇌자회의 앞,” 『로동신문』, 1964년 10월 5일.

29)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엮음, 『제3세계관계자료집: 입법참고자료 제205호』(서울: 국회도서관, 1978), 126쪽.

30) 편집부 엮음, 『비동맹운동』, 84쪽. “비동맹정상회의 개막,” 『경향신문』, 1970년 9월 9일.

31) “제3차 뿔럭불가담 수뇌자회의 앞,” 『로동신문』, 1970년 9월 8일.

있으며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침략과전쟁 책동을 강화하여 평화를 교란하고 있는 정세하에서 모든 반제평화에호력량이 힘을 합쳐 투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나는 이번 회의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 및 인종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해방, 민족적독립의 공고화와 세계평화를 위한 인민들의 공동위업을 크게 이바지하리라고 믿으면서 토의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김일성이 수뇌자회의에 보내는 축전의 내용은 2차 때와 유사했다. 그리고 제3차 뽀력불가담 수뇌자회의는 “여전히 많은 점에서 반제국주의·반식민주의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³²⁾ 그런데 『로동신문』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이 회의의 참가자들이 “남조선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민족적 독립과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³³⁾ 이처럼 북한은 뽀력불가담이 채택한 결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회의 참가국들이 한반도 분단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32) 편집부 엮음, 『비동맹운동』, 86쪽.

33) “미제는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즉시 중지하고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당장 철거시키라.” 『로동신문』, 1970년 9월 20일.

3. 1973년 제4차 뽄력불가담 수뇌자회의와 북한의 자주적인 대외정책

1972년 8월 8일 뽄력불가담 외상회의가 라틴아메리카에 위치한 가이아나의 수도 조지타운에서 개최됐다. 회의 마지막 날인 11일 이른바 “조지타운선언”이 발표됐다. 이 선언문에는 이전보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어조가 더욱 명확하게 포함됐다. 특히 이 선언문에는 한반도 문제가 다음과 같은 단독 조항으로 처음 명시됐다.³⁴⁾

26. 회의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취한 최초의 결과에 대하여 만족의 뜻을 성명했다. 한국국민에 의한 통일달성을 위하여, 회의는 이 문제에 관한 모든 외국으로부터의 간섭중지를 요구한다. 회의는 또한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를 호소한다.

앞선 뽄력불가담 수뇌자회의에서 외국 군대의 ‘주둔’만을 문제 삼은 데서 더 나아가, 이번 선언문에는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포함됐다.³⁵⁾

이처럼 북한이 원하는 더욱 강경한 문구가 포함됐음에도, 『로동신문』에는 짙막한 단신 기사만 보도됐다.³⁶⁾ 이는 1972년 7월 4일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직후로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은 남북한 양자 간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 분단과 통일 문제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뽄력불가담 외상회의의 선언을 드러내

34)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엮음, 『제3세계관계자료집』, 162쪽.

35) 김도민,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비동맹 외교』, 30쪽.

36) “뽄력불가담국가 외상회의가 열렸다,” 『로동신문』, 1972년 8월 12일.

놓고 지지하거나 강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빨럭불가담 외상회의 선언의 내용은 북한을 고무했다. 남한 외무부의 정보 수집에 따르면, 북한은 빨럭불가담 외상회의의 직후인 1972년 8월 17일 김경련 북한 재무상 일행이 가이아나에 입국했다.³⁷⁾ 또한 주(駐)북한 헝가리 대사관에 따르면, 1972년 여러 “정부 고위 대표단과 국가 수뇌자, 유력 지도자들이” 북한을 “대거 방문”했으며, 북한도 이에 화답하는 방문을 진행했다. 이러한 북한의 빨럭불가담 관련 대외활동은 1973년 더욱 강화되었다. 1973년 김일성 주석 “개인 특사들”은 “80여 국가에 파견”됐다.³⁸⁾

또한 북한 지도부는 제4차 빨럭불가담 수뇌자회의에 대비하여 “빨럭불가담나라들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들에 우선적으로 조선의 대표단과 주요 인사들을 파견할 방안을 모색”했다. 예를 들어, 주북한 헝가리 대사관이 판단하기에 북한은 “캄보디아의 시아누크 국왕과 여러 차례 회담을 했고, 알제리 대표단을 맞이했으며 이집트와 북한의 관계도 상당한 개선을” 이루었다. 특히 북한 지도부는 “유고슬라비아 티토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 1973년 2월 말 허담 부총리 겸 외무상은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를 방문했다. 그리고 1973년 5월 유고슬라비아 고위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했으며, 김

37) 『비동맹 외상회의, 제4차. Georgetown(가이아나) 1972.8.8.-12. 전 3권(V.3 회의결과)』, 1972(2005), 국제연합, 7112, 728.22, F-0005, 3.

38) “Hungarian Embassy in the DPRK, Report, 27 September 1973. Subject: The DPRK and the Non-Aligned Summit in Algiers,” September 27, 1973,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MOL, XIX-J-1-j Non-Aligned Movement, 1973, 120. doboz, 209-10, 00614/49/1973. Obtained and translated for NKIDP by Balazs Szalontai(<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6004>).

일성도 이들을 맞이하며 알제회담 준비 과정에서 그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8월 말에는 당 정치국 후보위원이자 중앙위원회 비서인 김동규가 직접 티토 주석에게 김일성 주석의 친서를 전달했다.³⁹⁾

1973년 9월 5일부터 9일까지 아프리카의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뿔럭불가담 수뇌자회의가 참가국 72개국, 그리고 옵서버 20개국 및 4개 기구 등이 참석한 채 개최됐다.⁴⁰⁾ 북한은 회의 개최 이틀 전인 1973년 9월 3일 김일성 주석 명의의 축전을 보냈다. 그런데 이전과 달리 이번 축전에는 새롭게 “자주”라는 단어가 다음과 같이 처음으로 등장했다.⁴¹⁾

이번 제4차뿔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새 생활 창조를 위한 오늘의 투쟁의 공통성으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굳게 단결되어 있으며 그들의 민족해방운동과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국주의는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며 세계인민들이 자주

39) *Ibid.*, 27 September 1973. 인도네시아는 남한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기울인 노력은 부분적인 성과만을 거두었다고 한다.

40)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제3세계관계자료집: 입법참고자료 제205호』(1978), 168쪽. 참가국은 다음과 같다.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바레인, 부탄, 보츠와나, 버마, 우룬디, 캄보디아, 카메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칠레, 콩고, 쿠바, 키프로스, 다호메이, 이집트,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가봉, 가나, 기니, 가이아나,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코트디브아르, 자메이카, 요르단, 케냐, 쿠웨이트, 라오스,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아랍공화국), 말라가시, 말레이시아, 말리, 몰타, 모리타니, 모리셔스, 모로코, 네팔, 니제르, 오만, 페루, 카타르, 르완다,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베트남(P.R.G), 스리랑카, 수단, 스와질랜드(에스와티니), 시리아(아랍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우간다, 아랍에미리트연방, 오트볼타, 예멘(AR), 예멘(PDR), 유고슬라비아, 자이레, 잠비아.

41) “알제 제4차뿔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의 앞,” 『로동신문』, 1973년 9월 5일.

길로 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우리 시대의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번 회의가 온갖 형태의 침략과 예측, 불평등을 반대하며 제3세계인민들의 공동의 리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리라고 믿으면서 회의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을 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밑줄 및 강조는 인용자)

반제국주의와 민족해방운동을 지지한다는 점에서는 1970년 축전과 내용이 대동소이했다. 그런데 이번 축전에서 김일성은 국제정세가 “자주의 길로” 나가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는 북한이 추구하는 대외관계에서 “자주로선”의 방향과 빨럭불가담 회의의 성격을 동일하게 규정 한 것이었다. 북한은 이미 1966년 10월 당대표자회의 때부터 “자주로선”을 공식화해 왔다.⁴²⁾ 특히 1960년대 중후반부터 북한은 좌우경 기회주의를 비판하며 대국에 의존하기보다 작은 나라들과 자주적 연대를 추구하는 새로운 냉전전략을 추진했다.⁴³⁾ 특히 1972년 12월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5기 1차 회의에서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제1조에서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밝혔을 뿐 아니라 제16조에서는 “대외관계에 완전한 평등권과 자주권을 행사한다”라고 명시했다.⁴⁴⁾

이처럼 김일성이 빨럭불가담에 대하여 ‘자주의 길’이라며 새롭게 성격 규정한 것은, 1970년대 초 데탕트라는 국제정세의 변화 과정에서

42) 김보미, 『김일성과 중소분쟁: 북한 자주외교의 기원과 형성(1953~1966)』(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9), 488~489쪽.

43) 김도민,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 216~223쪽.

4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12.),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제3집: 4기1차회의~5기7차회의)』(서울: 국토통일원, 1988), 623~624쪽.

북한은 자국이 추구해 온 작은 나라들의 자주적 연대를 추동하며 다시금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뿔럭불가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주북한 헝가리 대사관에 따르면, 수뇌자회의 기간 중 김일성의 특사 진춘국 외무성 부상은 알제리를 방문했다. 그는 회의에는 참가하지 못했지만 다른 나라들과 대외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진춘국은 뿔럭불가담 회의에 참석한 대표단 지도자들 및 외무장들을 만났는데, 특히 시아누크 같은 지도자들을 방문하고 협의한 뒤 이들을 연결고리로 하여 회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또한 북한은 언론인 대표단을 알제리에 파견하여 회의에 참석시켰다고 한다. 북한 지도부는 이 대표단을 통해 회의에 참석한 대표단과 긴밀히 접촉을 유지하며 회의 과정에 대한 정보에 정기적으로 접근했다.⁴⁵⁾

그런데 이 회의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 결의안이 통과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유고슬라비아 외교관 디니치(Dinic)에 따르면 해당 결의안이 처음부터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처음에는 결의안 통과 자체에 반대했으며, 다양한 수정안을 제안했다. 그럼에도 회의 중에 특히 유고슬라비아의 티토와 캄보디아 시아누크의 연설은 회의의 분위기를 바꾸었고, 최종적으로 알제리의 제안에서 약간의 수정만 거친 후,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 수정 내용은 바로 “미군 철수” 요청이라는 문구가 “외국 군대 철수”로 변경된 것이었다.⁴⁶⁾

이러한 경과를 거쳐, 뿔럭불가담 수뇌자회의의 마지막 날인 1973년 9월

45) “Hungarian Embassy in the DPRK, Report, 27 September 1973. Subject: The DPRK and the Non-Aligned Summit in Algiers.”

46) *Ibid.*

9일 채택된 최종 결의문에는 한반도 문제가 ‘정치선언’ 및 ‘민족해방 투쟁선언’ 두 곳에 포함됐다. 먼저 ‘정치선언’(1~101항) 중 42항은 다음과 같다.⁴⁷⁾

42. 회의는, 한반도의 국민에 의하여 착수된 자주적 평화재통일의 행동을 지지하며, 남한으로부터의 외국군대 철수를 요구하고 또한 한국 문제는 외국의 간섭없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⁴⁸⁾

다음으로 “민족해방투쟁선언”(1~16항) 중 11항으로 알제리가 제출한 “한반도문제에 관한 결의안”(11. Resolution on the Problem of Korea)은 다음과 같은 3가지를 요구 및 선언했다.⁴⁹⁾

47) 선언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42. The Conference supports the action of independent and peaceful reunification undertaken by the Korean people, requests the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from South Korea and considers that the Korean problem must be solved without foreign interference. “DOCUMENTS OF THE FOURTH CONFERENCE OF HEADS OF STATE OR GOVERNMENT OF NON-ALIGNED COUNTRIES, Held at algiers, from 5 to 9 September 1973,”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GENERAL A/9330, 22 November 1973), p.12

48)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제3세계관계자료집』, 175쪽.

49) “제4차 빨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 『로동신문』 1972년 9월 12일. 해당 결의안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 Bearing in mind the desire of the Korean people for the reunification of their country and their unanimous opposition to the proposal for membership of Korea in the United Nations in the form of simultaneous membership by two Koreas which would make it possible to perpetuate the division of the country,

1. Calls for the withdrawal of all foreign troops stationed in South Korea and an end to foreign interference in all its forms in the domestic affairs of

나라의 통일에 대한 조선인민의 념원과 나라의 영구분렬을 가져오게 될 두 개 조선의 유엔동시가입안에 대한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반대를 고려하여,

1.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와 조선의 내정에 대한 온갖 형태의 외세의 간섭의 종식을 요구한다.
2. 또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제28차유엔총회에서 조선문제를 심의할 것과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군대의 철거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해체를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3. 조선의 유엔가입은 조선의 완전한 통일이 이룩된 다음이거나 남북련방제가 실시된 다음 단일국호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언한다.

Korea:

2. Further calls on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at its Twenty-Eighth Session, to consider the question of Korea and to decide on the withdrawal of foreign troops stationed in South Korea under the United Nations flag and on the dissolution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with a view to facilitating the peaceful and independent reunification of Korea;
3. Declares that Korean 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 can only be achieved in the name of a single State, after the complete reunification of the country or after the establishment of a confederation of North and South.
“DOCUMENTS OF THE FOURTH CONFERENCE OF HEADS OF STATE OR GOVERNMENT OF NON-ALIGNED COUNTRIES, Held at algiers, from 5 to 9 September 1973,”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GENERAL A/9330, 22 November 1973), p.49

북한 주재 헝가리 대사관은 “북한 지도부는 알제회의가 조선문제를 통과시킨 결의문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헝가리 대사관은 “김일성 본인이 이 결의안을 높이 평가”했으며, 북한 언론은 “논평과 함께 결의문 전체를 발표”했을 뿐 아니라 북한 “전역에서 개최된 지방 회담과 회의들에서 알제 결의안에 대해, 조선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승리로 제시”했다고 본국에 보고했다.⁵⁰⁾

『로동신문』은 1973년 9월 12일 자 신문 1면에 그 내용과 의의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북한 지도부는 한반도 관련 조항이 가지는 의미를 첫째, “조선의 유엔가입은 조선의 완전한 통일이 이룩된 다음이거나 남북련방제가 실시된 다음 단일국호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외국군대는 남조선으로부터 물러가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신문의 논조는 뽀럭볼가담 회의가 채택한 조선문제 결의안은 김일성이 제시한 조국통일 5대강령을 지지하는 것임을 강조했다.⁵¹⁾

1973년 6월 23일, 김일성은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총서기 후사크 환영대회 연설에서 “조국통일 5대강령”을 발표했다. 여기서 그는 현 국제정세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⁵²⁾

미국은 <<닉슨주의>>에 따라 량면전술을 쓰면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

50) “Hungarian Embassy in the DPRK, Report, 27 September 1973. Subject: The DPRK and the Non-Aligned Summit in Algiers.”

51)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5대강령을 지지한다.” 『로동신문』, 1973년 9월 12일.

52) 김일성, “민족의 분열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 공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한 연설(1973년 6월 23일),” 『김일성 저작집』, 제2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되고 조선의 북과 남 사이에 대화가 시작된 이후에도 남조선의 호전 분자들을 부추겨 조선사람끼리 싸우게 하며 조선의 분열을 영구화하고 《두개 조선》을 만들려는 책동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에 발맞추어 남조선당국자들도 역시 량면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 《평화통일》의 간판을 내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있는 대결》, 《대화있는 경쟁》, 《대화있는 공존》을 공공연히 부르짖으면서 분열의 영구화를 꾀하고 있으며 군사력증강에 온갖 힘을 다 돌리고 있습니다. ……

김일성은 남한의 박정희정부가 1973년 6월 23일 발표한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관한 대통령 특별성명’(6·23선언)이 미국의 한반도 분열 정책에 따라, 한반도 분단을 영구화하기 위해 “두개 조선”을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즉, 김일성은 “한국의 ‘6·23선언’에 맞서” 조국통일 5대강령을 발표했다.⁵³⁾ ‘5대강령’은 첫째, 남북의 군사적 대치상태의 긴장상태 해소, 둘째, 북과 남 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 셋째, 각계각층 인민들과 정당·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 소집, 넷째 고려연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남북 연방제 실시, 다섯째, 고려연방공화국 단일 국호로 유엔 가입 등을 그 내용으로 했다. 이처럼 김일성의 조국통일 5대강령은 “오늘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고 평화적조국통일의 민족적 숙원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해,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새로이 내외에 천명”한 것이었다.⁵⁴⁾

53) 하영선, “북한 1972진실 찾기: 7·4공동성명의 추진과 폐기,” 하영선 엮음, 『1972 한반도와 주변4강 2014』(서울: EAI, 2015), 161쪽. 박정희정부의 6·23선언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고. 신종대, “남북한 외교경쟁과 ‘6.23선언,’” 『현대북한연구』, 제22권 3호(2019).

1973년 9월 12일 자 『로동신문』은 뽀러불가담 수뇌자회의에서 “연설한 수많은 나라들의 국가수반들과 정부수반들 그리고 여러 대표들은 한결같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으며, “그들은 평화와 통일의 선구자이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일성주석께서 올해 6월 23일에 제시하신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5대강령을 지지”하는 것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⁵⁴⁾

김일성은 자신이 제시한 조국통일 5대강령의 내용이 이번 제4차 뽀러불가담 수뇌자회의에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뽀러불가담 수뇌자회의가 채택한 한반도 관련 결의문과 직후 개최된 제28차 유엔 총회에서 처음으로 북한이 ‘무조건’ 참가하게 된 사건을 언급하며, 전반적인 국제정세가 “작은나라들이 자주성에 기초하여 단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⁵⁶⁾

얼마전에 알제리에서 진행된 제4차뽀러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는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규탄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습니다. 제4차뽀러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는 조선의 내정에 대한 온갖 형태의 외세의 간섭을 종식시키며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해체하며 조선의 유엔가

54) 김일성,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55)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5대강령을 지지한다.” 『로동신문』, 1973년 9월 12일.

56) 김일성, “인민군대의 중대를 강화하자: 조선인민군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한 연설(1973년 10월 11일),” 『김일성 저작집』, 제2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입은 조선의 완전한 통일이 이룩된 다음이거나 남북련방제가 실시된 다음 단일국호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유엔총회에서는 유엔에서 조선문제를 토의할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를 무조건 참가시킬데 대한 결정을 전월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

오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많은 나라 인민들이 우리 인민을 적극 지지하는 것은 우리 당이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옳은 로선과 정책을 실시하며 자주적으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누구나 다 주체적으로 살것을 원하며 자주적으로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정세발전의 중요한 추세는 작은 나라들이 자주성에 기초하여 단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세에서 우리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튼튼히 세우고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나간다면 우리 혁명에 더욱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할수 있으며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앞당길수 있습니다… (밑줄 및 강조는 인용자)

이처럼 북한은 제4차뻘럭불가담 수뇌자회담에서 논의되는 한반도 통일 문제 관련 조항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으며, 실제 이번 수뇌자회의에서 한반도 문제 관련하여 북한의 입장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결의안이 채택됐다. 북한은 자신들이 ‘자주성’에 입각하여 추진하고 있는 대내외정책이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고 보았다.

사실 북한은 1960년대 중후반부터 새로운 냉전전략으로 ‘작은 나라들의 자주적 연대’를 추진해 왔다. 그렇다면 북한은 앞선 1972년 가이나 외상회의 때와 달리, 왜 이번에는 매우 자세히 보도했던 것일까. 이는 일차적으로 제4차뻘럭불가담 회의 결의안이 북한에 매우 유리한

내용으로 채택됐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결의안이 발표된 1973년 9월이라는 시점은 남북대화가 진행 중이던 1972년 8월 초와 달리, 대화가 중단된 상황에 더해 남한이 국제사회에서 북한과 외교 경쟁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6·23선언을 발표한 직후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4. 1975년 뽀력불가담 외상회의와 북한의 가입

1975년 뽀력불가담 조정위원회 회의가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17개 국가(쿠바, 알제리, 유고슬라비아, 자이르, 세네갈, 소말리아, 스리랑카, 페루 등)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미 1975년 3월 17일 북한은 허담 외상 명의로 뽀력불가담 조정위원회 외상회의 앞으로 구상서(가입 신청, 1975년 2월 15일 자)를 제출한 상황이었다.⁵⁷⁾ 뽀력불가담 조정위원회 회의는 북한을 뽀력불가담 회의에 참가시키는 데 대한 찬성권고안을 다음과 같이 채택했다.⁵⁸⁾

조정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적인 대내외정책이 뽀력불가담의 원칙들과 일치하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또한 이 정책이 뽀력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서,
리마에서 곧 열리게 될 외교부장회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뽀력불가담성원으로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면서 뽀력불가담집단의 확대

57) 김도민,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비동맹 외교』, 46쪽.

58) “뽀력불가담국가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뽀력불가담국가회의에 참가시킬데 대한 찬성권고안을 채택,” 『로동신문』, 1975년 3월 23일.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이 나라에 자기의 만족감을 표시한다.

이러한 북한의 참가권고안 채택에 대해, 『로동신문』은 3월 24일자 사설에서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에서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신흥세력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의 표시”라며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 특히 이번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적인 대내외정책이 빨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있을 빨럭불가담국가회의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참가시킬데 대한 찬성권고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뻘루에서 곧 열리게 될 빨럭불가담국가외교부장회의에 제기하였다. ……

알제에서 열렸던 제4차빨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방침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이번에 아바나에서 진행된 빨럭불가담국가조정위원회 회의의 선언에서 다시금 우리 공화국의 조국통일방침을 지지한 것은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이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힘있게 보여주고 있다. ……

이러한 북한의 가입권고안 채택 소식이 남한에 알려지면서, 박정희 정부는 북한이 빨럭불가담에 가입할 자격이 없다며 관련 국가들과 적극적인 외교 교섭을 펼쳤다. 나아가 박정희 정부는 남한의 빨럭불가담 가입을 추진했다.⁵⁹⁾ 이에 북한은 비난을 퍼부었다. 박정희 정부가 빨

59) 김도민,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비동맹 외교』, 46~52쪽.

력불가담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은 “남조선인민들의 날로 양양되는 반정부, 반파쇼민주화 투쟁에 부딪쳐 최후멸망의 위기에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며, 남베트남과 “련이어 놀아나”다가 결국 “외톨이로 남게된 오늘 국제무대에서 완전히 고립된 엄혹한 난국”을 “벗어나보려는 가련한 신세타령이며 절망의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했다.⁶⁰⁾

가입권고안이 채택된 상황임에도, 북한은 가입에 최종 성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전개했다. 앞서 보았듯이 뽀력불가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고슬라비아와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은 여러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에는 김일성이 직접 티토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유고슬라비아를 공식 방문했다.

1975년 6월 6일, 보르도 궁전에서 양국 간 수뇌자회담이 진행됐다. 이날 김일성은 유고슬라비아가 “자주적인 립장에 튼튼히 서서 뽀력불가담정책을 적극 추진시킴으로써 국제관계 발전에 커다란 건설적 기여”를 하고 있다며 높이 평가했다. 또한 김일성은 “유고슬라비아동지들이 우리나라를 뽀력불가담국가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노력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여 주고 있는데 대하여 이오씨프 브로즈 찌포동지와 유고슬라비아 정부와 인민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⁶¹⁾ 이에 티토는 북한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⁶²⁾

60) 송무경, “뽀력불가담국가들에 대한 모독행위,” 『로동신문』, 1975년 4월 29일.

61) 김일성,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형제적친선협조관계는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영원히 강화발전될 것이다(오찬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연설),” 『로동신문』, 1975년 6월 8일.

62) 티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뽀력불가담나라들의 활동에 정식으로 참가하는 것은 뽀력불가담 정책을 더욱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오찬회에서 하신 이오씨프 브로즈 찌포동지의 연설),” 『로동신문』, 1975년 6월 8일.

…… 우리는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으로 나라를 통일하기 위하여 기울이고 계시는 당신의 노력을 환영하며 당신께서 정식화하신 조국통일 5대강령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남조선으로부터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는 것입니다. 외국군대의 남조선주둔은 이 지역과 보다 광범한 지역에서의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됩니다.

우리는 조선의 통일이 실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

우리는 뿔럭불가담정책을 더욱 확고히 하는데 기여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뿔럭불가담나라들의 활동에 정식으로 참가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 (밀줄은 인용자)

이는 북한이 약 10년 전인 1961년과 1964년 열린 뿔럭불가담 수뇌자회의에서 유고슬라비아를 강하게 비판하던 입장과 매우 달라진 모습이었다.⁶³⁾ 이제 북한은 유고슬라비아야말로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국가였다.

김일성과 티토의 수뇌자회담이 끝난 지 두 달 후인 1975년 8월 25일 뿔럭불가담 외상회의가 페루 리마에서 개최됐다. 리마에 대표를 보낸 가입국 및 기관은 총 77개였다.⁶⁴⁾ 회의에 앞서 8월 18일 외교부 부

63) 유고슬라비아와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김태경, “비동맹운동 60주년에 돌아보는 냉전기 북한의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인식 변화,” 『역사문제연구』, 제46호(2021). 박아름, “데탕트의 압력과 북한의 대응”

64) 77개 국가 및 기구는 다음과 같다.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아르헨티나, 바레인, 방글라데시, 부탄, 보츠와나, 버마, 부룬디, 케이프베르데,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 차드, 콩고, 쿠바, 키프로스, 다오메이(베닌), 남예멘, 이집트, 적도기니, 에티오피아, 가봉, 감비아, 가나, 기니, 기니비사우, 가이아나, 인도, 인도네시아,

부장 리종목이 인솔하는 빨럭불가담 대표단 5명이 페루 리마에 입국했다. 그리고 조금 늦은 8월 22일 허담 외무상이 입국했다.⁶⁵⁾ 북한은 그동안 수뇌자회의에만 축전을 보내던 관행에서 벗어나, 8월 24일 김일성 주석 명의의 축전을 외상회의에도 다음과 같이 발송했다.⁶⁶⁾

리마

빨럭불가담국가외교부장회의 앞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빨럭불가담국가외교부장회의와 회의에 참가한 여러 나라 대표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인사를 보냅니다.

이번에 페루공화국의 수도 리마에서 열리는 빨럭불가담국가 외교부장회의는 빨럭불가담운동의 리념과 원칙에 맞게 이 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며 빨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데서 또한

이라크, 코트디부아르, 자메이카, 요르단, 케냐, 쿠웨이트, 라오스, 레바논, 레소토, 라이베리아,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말리, 몰타, 모리타니, 모리셔스, 모로코, 모잠비크, 네팔, 니제르, 나이지리아, 오만, 페루, 카타르, 남베트남, 르완다, 사우디아라비아, 세네갈,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소말리아, 스리랑카, 수단, 스와질랜드(에스와티니), 스리아, 토고, 트리니다드토바고, 튀니지, 우간다, 아랍에미리트연방, 카메룬, 탄자니아, 오트볼타, 예멘, 유고슬라비아, 자이레, 잠비아. 그리고 이 회의에서 가입이 확정된 국가 및 기구는 북베트남, PLO, 파나마, 북한 등이었다.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제3세계관계자료집: 입법참고자료 제205호』, 1978, 210쪽.

- 65) “빨럭불가담국가외교부장회의에 참가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이 페루의 수도 리마에 도착,” 『로동신문』, 1975년 8월 25일. 남한 외무부의 정보에 따르면, 북한 대표단은 약 20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인다. 『비동맹 전체 외상회의. Lima(페루) 1975.8.25.-30. 전9권: V.6 현지교섭 및 회의경과』, 1975 (2006), 국제연합, 8299, 728.22, F-0007, 1.
- 66) “빨럭불가담국가외교부장회의 앞,” 『로동신문』, 1975년 8월 25일.

나의 중요한 계기로 됩니다.

빨럭불가담운동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 우리 시대 발전의 기본추세를 반영하고 있으며 전반적세계 정세발전에 날로 증대되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지난날의 처지와 오늘의 투쟁의 공통성으로 하여 빨럭불가담나라 인민들과 한대렬에 튼튼히 서있으며 빨럭불가담나라들과 힘을 합쳐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완전한 평등과 자주권, 평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번 회의가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며 제국주의자들이 제멋대로 만들어놓은 낡은 국제관계를 마시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빨럭불가담나라들의 공동의 위업을 촉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되리라고 믿으면서 회의사업에서 훌륭한 성과가 있을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김 일 성

1975년 8월 24일 평양

이 축전은 제3차 빨럭불가담 수뇌자회의에서 등장했던 “자주”가 세계정세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강화됐음을 강조했다. 즉, 김일성은 “빨럭불가담운동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 우리 시대 발전의 기본추세를 반영”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세계 정세발전에 날로 증대되는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1975년 8월 23일, 빨럭불가담 외상회의에 앞서 조정위원회가 열렸다. 이 조정위원회에서는 북한의 가입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논쟁이 오가며 결론 없이 휴회됐다. 8월 25일 21시부터 빨럭불가담 외상회의

의 비공식 전체회의가 개최됐다. 남한과 북한의 가입 문제는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북한은 “일부회원국의 유보”가 있었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가입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한국 외무부의 분석에 따르면, 77개의 가입국 및 기관들 중 “20여개국”이 북한의 “단독가입에 반대”했다고 한다. 반면 남한의 가입 신청은 “부결”이라는 표현 대신 “회원국의 콘센서스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공표됐다. 이로써 1975년 8월 25일 북한은 뽀력불가담 가입에 성공했으며, 남한은 실패했다.⁶⁷⁾

25일 가입이 확정되자, 다음 날 북한의 허담 부총리 겸 외무상은 26일 비동맹회의에 출석해 가입 감사 연설을 했다. 이 연설문은 2일 후인 8월 28일 자 『로동신문』에 다음과 같이 게재됐다.⁶⁸⁾

존경하는 의장각하!

존경하는 각국 외교부장각하들과 대표여러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은 뽀력불가담운동의 정식성원으로
로서 본 뽀력불가담국가외교부장회의에 참가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

우리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실시하고 있는 자주적인 대내외정책의
원칙들은 뽀력불가담정책의 원칙들과 일치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주석님

67) 김도민,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비동맹 외교』, 65~68쪽. 외무부, “리마 비동맹외상회의의 경과와 평가”(1975.9.), 『비동맹 전체 외상회의. Lima(페루) 1975. 8.25.-30. 전 9권: V.7 결과분석 및 후속 조치』, 1975(2006), 국제연합, 8300, 728.22, F-0007, 2.

68) “리마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뽀루의 수도 리마에서 진행되고있는 뽀력불가담국가 외교부장회의 26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인 허담 부총리 겸 외교부장이 연설 하였다.” 『로동신문』, 1975년 8월 28일.

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빨럭불가담정책은 제국주의가 파산 몰락되고있으며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국제관계에서 완전한 평등권을 주장하면서 자주의 길로 나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대발전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하고있는 것으로 하여 빨럭불가담정책은 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많은 나라들을 단합시키고있으며 날로 큰 생활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이 시종일관하게 빨럭불가담운동의 리념과 원칙에 충실할것이며 언제나 빨럭불가담나라들과 한대렬에 튼튼히 서서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갈 결의를 엄숙히 확인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밀줄은 인용자)

페루 리마에서의 남북 외교대결에 대해, 북한 지도부는 “공화국정부의 자주적대외정책의 빛나는 승리”라고 규정했다. 즉, 북한의 가입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공화국정부가 시종일관 확고하게 견지하고 있는 반제자주적인 대외정책의 빛나는 승리”이자 “그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의 뚜렷한 시위”였다.⁶⁹⁾ 또한 『로동신문』 사설은 한반도 통일과 사회주의에 유리한 국제정세가 조성됐으며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⁷⁰⁾

69) “공화국정부의 자주적대외정책의 빛나는 승리 우리 나라가 빨럭불가담운동의 정식성원으로 가입,” 『로동신문』, 1975년 8월 27일.

70) “사설: 우리 당 자주로선의 빛나는 승리, 조선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과시한 커다란 사변,” 『로동신문』, 1975년 8월 28일.

…… 우리 나라가 뽀력불가담운동의 성원으로 된것은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일층 튼튼히 함으로써 우리 조국의 자주적통일 위업에 유리한 정세를 조성할뿐아니라 그것은 사회주의가 튼튼한 동맹자를 가지게 되는것으로서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는 데 유리하며 전반적으로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혁명력량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기여로 된다. ……

이처럼 북한은 자신의 뽀력불가담 가입이 “자주적 대외정책”의 결과물이자, “우리 혁명의 국제적 련대성을 튼튼히 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통일에 유리한 정세”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냉전의 최전선이자 사회주의 진영의 북한은 냉전의 어느 편에 서지 않겠다는 뽀력불가담에 스스로 가입한 데 대해, “사회주의가 튼튼한 동맹자들” 확보함으로써 “사회주의 위업을 전진시키는 데” 유리한 국제정세를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1960년대 북한이 중소 갈등이라는 상황에서 “자주로선”을 지향함으로써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 교조주의와 수정주의를 모두 비판하며, 대국에 휘둘리지 않고, 사회주의 진영 내의 작은 나라들의 연대를 강조하던 입장을 더욱 확대한 것이었다. 즉, 1970년대 초중반 북한의 대외활동은 사회주의 진영 내에서의 작은 나라들 간의 연대를 넘어 진영 외부의 국가들과도 연대함으로써 “사회주의 위업을 전진시키”고자 하였으며, 그 결실이 바로 1975년 뽀력불가담 가입 성공이었다.⁷¹⁾

71) 1987년 출간한 책에서 북한은 1970년대 자국의 대외활동에 대해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며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공화국의 대외활동”이었다고 정리했다. 박태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 제2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85쪽.

1975년 8월 말, 『로동신문』에는 북한의 뿔럭불가담 가입을 축하하는 관련 국가들의 축전들이 연일 소개됐다.

5. 맺음말

본고는 뿔럭불가담 회의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활동을, 특히 1970년 제3차 뿔럭불가담 수뇌자회의부터 1973년 제4차뿔럭불가담 수뇌자회의, 그리고 1975년 뿔럭불가담 외상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북한이 가입에 성공하게 되는 일련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북한은 1966년 10월 열린 당대표자회의에서 김일성이 밝혔듯이, 중국과 소련 같은 좌우경 기회주의를 일삼는 대국에 의존하기보다 ‘자주적인’ 대외관계를 개척할 것을 천명했다. 이러한 북한의 새로운 냉전 전략은 1968년 김일성이 아세아·아프리카·아메리카인민단결 기구 기관지 『프리폰띠넨말』 제8호에 게재한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라는 글에서 자세히 제시됐다. 김일성은 이 글에서 ‘작은 나라의 주체성’에 입각한 ‘작은 나라들’의 연대를 강조했다. 그리고 여기서 작은 나라들의 연대는 대체로 사회주의 내의 작은 나라인 쿠바와 베트남 등을 의미했다.⁷²⁾ 이러한 북한의 자주적인 대외관계 지향은 1970년 초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에 따라 더욱 강화되었다. 즉,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간의 데탕트는 북한이 더욱 비(非)사회주의 국가들과도 대외관계를 확장해야 하는 배경이었다.

72) 김도민,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 221~222쪽.

이제 북한은 1970년부터 다시 열리기 시작한 뽀력불가담 수뇌자회의에 대해 대외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북한은 1973년 열리는 뽀력불가담 수뇌자회의의 한반도 문제 관련 선언·결의문에, 김일성이 내세운 조국통일 5대강령에 입각한 내용이 실리게끔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이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제4차 뽀력불가담 수뇌자회의의 최종 선언문이 발표된 직후, 북한은 한반도 관련 선언 및 결의문이야말로 자신들의 ‘자주적 대외정책’의 승리로서 규정하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이러한 성과를 이어받아, 1975년 페루 리마에서 열린 뽀력불가담 외상회의에서 북한은 남한을 따돌리고 홀로 가입에 성공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 북한은 자신들이 추구해 온 자주적 대외정책의 성과라고 평가했으며, 이러한 국제정세는 사회주의가 진영 외부에서도 “튼튼한 동맹자”를 확보함으로써 “사회주의 위업”을 전진시킨다고 보았다.

1970년대 초 북한이 뽀력불가담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상당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지구적 냉전과 아시아 지역 그리고 한반도 상황이 변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70년부터 본격화한 지구적 데탕트의 상황에서, 북한은 ‘작은 나라의 자주적인 연대’의 강화라는 새로운 냉전전략을 실행하고자 비동맹을 중요한 대외활동의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북한은 남북한 대결이 펼쳐지는 유엔총회에서 지지 ‘표’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엔에서 영향력이 공고화된 비동맹 국가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이는 실제 유엔총회에서 북한 측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다.⁷³⁾ 또한 1970년대 초 미국의 베트남 철수라는 상황

73) 1973~75년 시기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를 둘러싼 남북간 외교경쟁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논문 참고. 윤혜령, “박정희 정부의 비동맹 외교 재조명: 1973~1976년 유엔총회를 중심으로,”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제7권 1호

이 맞물리면서 외국군과 기지 문제는 비동맹 그룹에 부정적으로 인식됐으며, 이는 한반도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문제를 더욱 가시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1972년부터 1975년까지 비동맹 회의는 북한이 추구하는 외군 철수 후 자주적인 한반도 통일의 문제를 결의안에 포함시켰으며, 실제 1975년 냉전의 최전선이자 사회주의 진영인 북한을 비동맹에 가입시키기까지 했다.

이렇게 북한은 1975년 가입에 성공함으로써, 빨럭불가담 외교에서 승승장구할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1976년 열린 제5차 빨럭불가담 수뇌자회의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1975년 리마 빨럭불가담 외사회 회의 때와 달리 이번에는 한반도 문제 관련하여 장시간에 걸친 찬반양론이 백중환 가운데 논란이 거듭됐다.⁷⁴⁾ 또한 1976년 8월 18일 발생한 ‘판문점 사건’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여론”을 더욱 “악화”시켰다. “판문점 사건은 북한을 지지하던 제3세계국가”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결국 1976년부터 1979년까지 북한의 빨럭불가담 활동은 하향세를 보였다.⁷⁵⁾

그렇다면 북한은 1976년 제5차 빨럭불가담 수뇌자회의 이후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에서 빨럭불가담에 대해 어떠한 대외활동을 펼쳤을까? 또한 본고는 1970년대 북한의 빨럭불가담 관련 대외활동을 북한이 생산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관련 빨럭불가담 국가들은 북한에 대해 어떠한 인식하에 외교정책을 전개했을까? 이는 관련 빨럭불가

(2021); 최익제, “『제30차 유엔총회 북한의 한국문제 결의안 통과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74) 김도민,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비동맹 외교』, 72쪽; 『비동맹 정상회의, 제5차. Colombo(스리랑카) 1976.8.16.-20. 전 8권(V.4 회의경과 II: 본회의)』, 1975~1976(2007), 국제연합, 9381, 728.21, F-06-0008, 04

75) 임상순, 『오래된 미래? 1970년대 북한의 재조명』, 260쪽.

담 국가들이 생산한 자료가 수집, 정리, 번역되어야만 북한의 빨럭불가담 인식과 활동이 더욱 잘 이해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것들은 향후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 접수: 11월 3일 / 수정: 12월 7일 / 채택: 12월 11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박태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외관계사』 제2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2) 논문

김일성, “민족의 분열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한 연설(1973년 6월 23일),” 『김일성 저작집』 제2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_____, “인민군대의 중대를 강화하자: 조선인민군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한 연설(1973년 10월 11일),” 『김일성 저작집』 제2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3) 신문

“공화국정부의 자주적대외정책의 빛나는 승리 우리 나라가 빨럭불가담운동의 정식성원으로 가입,” 『로동신문』, 1975년 8월 27일.

“국제 긴장 상태의 근원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이다(빨럭 불가담 국가 수뇌자 회의 진행),” 『로동신문』, 1961년 9월 9일.

“쿠바 신문이 빨럭 불가담 국가 회의 준비 회의에서의 유고슬라비아 정부의 입장을 규탄,” 『로동신문』, 1964년 4월 14일.

김일성,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형제적친선협조관계는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영원히 강화발전될 것이다(오찬회에서 하신 김일성동지의 연설),” 『로동신문』, 1975년 6월 8일.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5대강령을 지지한다,” 『로동신문』, 1973년 9월 12일.

“리마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빠루의 수도 리마에서 진행되고있는 빨럭불가담국가 외교부장회의 26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인 허담

부총리 겸 외교부장이 연설 하였다.” 『로동신문』, 1975년 8월 28일.

“미제는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즉시 중지하고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당장 철거시키라.” 『로동신문』, 1970년 9월 20일.

“《빨럭불가담》의 가면을 리용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나라들을 분열시키려는 유고슬라비아의 시도에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로동신문』, 1962년 12월 13일.

“빨럭불가담국가 외상회의가 열렸다.” 『로동신문』, 1972년 8월 12일.

“빨럭불가담국가외교부장회의 앞.” 『로동신문』, 1975년 8월 25일.

“빨럭불가담국가외교부장회의에 참가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이 뻬루의 수도 리마에 도착.” 『로동신문』, 1975년 8월 25일.

“빨럭불가담국가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빨럭불가담국가회의에 참가시킬 데 대한 찬성권고안을 채택.” 『로동신문』, 1975년 3월 23일.

“사실: 우리 당 자주로선의 빛나는 승리, 조선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과시한 커다란 사변.” 『로동신문』, 1975년 8월 28일.

송무경, “빨럭불가담국가들에 대한 모독행위,” 『로동신문』, 1975년 4월 29일.

“제2차 빨럭불가담 수뇌자회의 앞.” 『로동신문』, 1964년 10월 5일.

“제3차 빨럭불가담 수뇌자회의 앞.” 『로동신문』, 1970년 9월 8일.

“제4차 빨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 『로동신문』 1972년 9월 12일

“제4차빨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앞.” 『로동신문』, 1973년 9월 5일.

티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빨럭불가담나라들의 활동에 정식으로 참가하는 것은 빨럭불가담 정책을 더욱 확고히 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오찬회에서 하신 이오씨프 브로즈 찌토동지의 연설),” 『로동신문』, 1975년 6월 8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고병철 외, 『북한외교론』(마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78).

국토통일원 엮음, 『북한개요』(서울: 국토통일원, 1979).

_____ 엮음,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제3집: 4기1차회의~5기7차회의)』(서울: 국

- 토통일원, 1988).
-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 엮음, 『제3세계관계자료집: 입법참고자료 제205호』(서울: 국회도서관, 1978).
-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서울: 백산서당, 2002).
- 김도민,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비동맹 외교: 한국의 가입신청 문제를 중심으로』(서울: 선인, 2023).
- 김보미, 『김일성과 중소분쟁: 북한 자주외교의 기원과 형성(1953~1966)』(서울: 서강대학교출판부, 2019).
- 민병천 편저, 『북한의 대외관계』(서울: 대왕사, 1987).
- 박원근, “테탕트와 한미관계: 1969~1973년,” 동북아역사재단 한국외교사편찬위원회 엮음, 『한국의 대외관계와 외교사: 현대편 2』(서울: 경인문화사, 2019).
- 임상순, “제3세계·유엔외교의 목표와 전략,” 서보혁·이창희·차승주 엮음, 『오래된 미래? 1970년대 북한의 재조명』(서울: 선인, 2015).
- 정규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서울: 일신사, 1997).
- 편집부 엮음, 『비동맹운동』(서울: 지양사, 1985).
- 하영선, “북한 1972진실 찾기: 7.4공동성명의 추진과 폐기,” 하영선 엮음, 『1972 한 반도와 주변4강 2014』(서울: EAI, 2015).
- 한치환, 『북괴의 대중립국 외교정책 및 그 대비책』(서울: 국토통일원, 1975).
-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파주: 창비, 2012).

2) 논문

- 김남식, “북한의 대비동맹 외교정책”(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김도민, “1948~1968년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김승우, “경제성장과 냉전의 체제경쟁 그리고 지구적 금융: 전후 남북한의 국제금융사,” 『역사의 창』, 제24권 1호(2022).
- 김태경, “비동맹운동 60주년에 돌아보는 냉전기 북한의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인식 변화,” 『역사문제연구』, 제46호(2021).
- 김훈태, “북한 대외정책노선에 관한 연구: 비동맹론 수용 이후 김일성 대외관 변화를

-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박아름, “테탕트의 압력과 북한의 대응: 북한과 유고슬라비아의 관계전환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26권 1호(2022).
- 박재규 엮음, 『북한의 대외정책』(마산: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6).
- 신종대, “남북한 외교경쟁과 ‘6.23선언,’” 『현대북한연구』, 제22권 3호(2019).
- 안청시, “신국제경제질서운동과 제3세계의 교섭전략: 아시아의 지역협력문제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세계정치』, 제7권 1호(1982).
- 양무진, “1970년대 북한경제와 장기집체 메커니즘의 형성,” 『현대북한연구』, 제6권 1호(2003).
- 윤승로, “북한의 비동맹외교 전개 과정(1971~1975)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 윤혜령, “박정희 정부의 비동맹 외교 재조명: 1973~1976년 유엔총회를 중심으로,”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제7권 1호(2021).
- 임태균, “북한의 대비동맹정책에 관한 연구: 정책결정요인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 최익제, “제30차 유엔총회 북한의 한국문제 결의안 통과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3) 신문

- “냉전완충지 마련? 중립국정상회담준비 “유엔”총회전(前) 개최,” 『동아일보』, 1961년 6월 7일.
- “비동맹정상회의 개막,” 『경향신문』, 1970년 9월 9일.
- “『중립』정의에 합의,” 『동아일보』, 1961년 6월 13일.
- “9월1일 개최 중립국정상회담,” 『동아일보』, 1961년 6월 10일.

4) 기타 자료

- 대한민국 외교사료관 소장 외교사료[*표기 방식: 『문서철명』, 생산년도(공개년도), 생산과, 공개번호, 분류번호, 공개번호, 롤번호, 파일번호].
- 『비동맹 외상회의, 제4차. Georgetown(가이아나) 1972.8.8.-12. 전 3권(V.3 회의결

- 과)』, 1972(2005), 국제연합, 7112, 728.22, F-0005, 3.
- 『비동맹 전체 외상회의. Lima(페루) 1975.8.25.-30. 전9권: V.1 기본대책 I(2~4월)』, 1975(2006), 국제연합, 8294, 728.22, F-0006, 1.
- 『비동맹 전체 외상회의. Lima(페루) 1975.8.25.-30. 전9권: V.6 현지교섭 및 회의경과』, 1975(2006), 국제연합, 8299, 728.22, F-0007, 1
- 『비동맹 전체 외상회의. Lima(페루) 1975.8.25.-30. 전9권: V.7 결과분석 및 후속조치』, 1975(2006), 국제연합, 8300, 728.22, F-0007, 2.
- 『비동맹 정상회담, 제2차. Cairo, 1964.10.5.-11. 전 2권: V.1 기본문서』, 1964(1995), 중동, 889, 728.1, F-0001, 1.
- 『비동맹 조정위원회 외상회의. Havana(쿠바) 1975.3.17-19』, 1975(2006), 국제연합, 8303, 728.23, F-0007, 5.

3. 국외 자료

1) 기타 자료

동구권 외교문서(우드로윌슨센터 디지털아카이브 소장), "Hungarian Embassy in the DPRK, Report, 27 September 1973. Subject: The DPRK and the Non-Aligned Summit in Algiers", September 27, 1973, Wilson Center Digital Archive, MOL, XIX-J-1-j Non-Aligned Movement, 1973, 120. doboz, 209-10, 00614/49/1973. Obtained and translated for NKIDP by Balazs Szalontai(<https://digitalarchive.wilsoncenter.org/document/116004>)(검색일: 2023년 11월 1일).

유엔 디지털 라이브러리(United Nations Digital library), "DOCUMENTS OF THE FOURTH CONFERENCE OF HEADS OF STATE OR GOVERNMENT OF NON-ALIGNED COUNTRIES, Held at algiers, from 5 to 9 September 1973,"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GENERAL A/9330, 22 November 1973)(<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577515>)(검색일: 2023년 11월 1일).

North Korea's Diplomacy toward the Non-aligned Movement from 1970 to 1975

Kim, Domi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North Korea's diplomacy toward the non-aligned countries from 1970 to 1975, focusing on the resolution of the Korean Peninsula question at the Non-aligned Movement (NAM) conferences and North Korea's membership in NAM. At the NAM Summit in 1973, North Korea made various lobbying efforts to ensure that declarations and resolutions related to Korean Peninsula issues were included in the agenda following a plan based on Kim Il-sung's 'Five-Point Program for National Unification', which he proposed while criticizing South Korean president Park Chung-hee's June 23 Declaration. Diplomatically, North Korea was quite successful. Later, at the 1975 NAM Foreign Ministers Meeting in Lima, Peru, North Korea's NAM membership was officially accepted. Regarding this series of outcomes, North Korea claimed that it was the result of its independent foreign policy and that this strengthened the socialist camp.

Keywords: Non-aligned Movement, independent diplomacy, two
Koreas,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Lima Foreign
Ministers Meeting, diplomatic competi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ive Articles of National Unification